

국교생 성폭행뒤 살해

광명 '화성살인'과 범행수법 비슷 91.12.7

【광명=홍용덕 기자】경기도 광명시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살인사건이 벌어져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6일 오전 10시20분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8-4 야산묘지 옆에서 광명시 서면국교 5학년인 이이무개(12)양이 성폭행당한 뒤 목졸려 숨져 있는 것을 이 동네 고아무개(15·소하1동 177)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고군에 따르면 이날 집 뒤 야산에 오르다 청바지가 반쯤 벗겨진 채 무덤 왼쪽에 반듯하게 누

워 숨져 있는 이양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발견 당시 숨진 이양은 청색 파커 지퍼가 열리고 청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서 국부에 갈대 줄기 3개와 갈대잎 한줌이 꽂힌 채 입술을 깨물면서 흐른 피가 볼에 엉겨 있었다.

숨진 이양은 사고 전날인 5일 오후 10시께 평소 살아온 이모부 서원범(34·광명시 소하1동 177)씨 집에서 나온 뒤 2백여m 떨어진 야산에서 이런 변을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이양은 지

난 5월께 부모가 별거하게 되면서 동생 두명과 함께 이모부 씨 집에서 생활해왔으며 아버지 이씨는 화성군 태안면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양 주검 주변에서 빈 소주병 1개, 소주잔 2개, 본드통 1개, 비닐봉지 4장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일단 묘지 주변에서 본드를 흡입하던 인근 불량배들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방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으나 화성 연쇄 살인범에 의한 원정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29일 기정주부를 유혹해

光州市의원 영장

주부유혹 성폭행

91.8.30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光州市北구의회의원 朴龍來씨(41·光州市北구梧峙洞)에 대해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0년 12월 27일 밤 11시경 평소 안면이 있는 주부洪모씨(41·光州市北구斗岩洞)를 全北井州市로 불러가자며 유인,井州市내 음식점에서 술을 먹인후 여관에 데리

고가 감당한 혐의다.

5살 어린이 유괴 환각상태서 살해

【대구=안영수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5살된 남자어린이를 유인해 환각상태에서 추행하려다 목졸라 숨지게 한 최화열(36·신문팔이)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동구 입석동 993-4 빈집 앞에서 백봉학(34·

회사원·동구 지저동 869)씨의 큰 아들 승곤(5)군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겁을 주어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본드냄새를 맡고 환각상태에서 백군을 추행하려다 겁먹은 백군이 울음을 터뜨리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